

## 21세기형 병무제도 정착을 위한 노무현의 약속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근간은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에서 나옵니다. 안보는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함께 일궈나가는 균형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위협과 압력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긴장완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식의 변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와 국방예산 제한성 등 병역의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21세기에 맞는 병역제도로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특권의 병역비리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국가의무에 대한 광범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갈증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은 새롭게 조성된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과학군 건설, 이를 통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새로운 병무정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4개월까지 단축

- 현 전력수준 유지를 위한 숙련기술인력 확보와 병력수급계획의 조정등을 거쳐 일차적으로 일반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 및 전력형성,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22개월까지 조정하겠습니다.
-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 전력수준의 하락을 막고, 정보과학군을 건설하기 위해 현역병보다 6~12개월 긴 유급지원병제와 과학기술사관(부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하고 여군인력을 간부정원의 1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